

전라감영의 연회 문화 복원한다

전주시, 전통문화전당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연구 세미나 개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가 전주음식의 기원을 밝힐 전라감영의 주안상과 연회문화 복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과 135년 전에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 손님에게 차려낸 상차림은 어떠했을까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가 전주음식 아카이브 연구의 일환으로 오늘날 전주음식의 시원(始原)을 전라감영에서 찾기 위한 전라감영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송영에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교수가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과 외국인 접대상'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남규 전주 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정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과 김미숙 한식진흥원 팀장, 김영 농촌진흥청 연구관, 박정민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호사설', '완산지' 등에서 찾아낸 전라도(전주)의 대표적인 식재료와 전라감사를 지낸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서유구의 '원영일록'에서 찾은 전라감영의 음식문화 등 총 19개의 고문헌에서 찾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이 재현될 예정이다.

나아가 조선 후기인 1884년 11월 10일에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조지 클레이턴 포크, George Clayton Foulk, 1856~1893)이 여행일기 속에 그려둔 아침밥상을 찾고, 이를 재현해 소개한다.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관의 무관이자 대리 공사를 역임한 포크는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아침 밥상에 대해 '가슴까지 차오른 엄청난 밥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전라감영을 두고 '작은 왕국'이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은 송영에 교수는 "음식과 관련된

고문헌이 전무한 전주에서 외국인(G. C. Foulk)이 기록해둔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아침밥상은 전라감영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최고(最古)이자 최초(最初)의 기록"이라며 "타 지역의 감영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감영의 주안상, 연회 문화 등이 있어 그 가치를 더해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전라감영 관찰사 음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전주비빔밥축제에서 관찰사 밥상을 재현해 기획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관찰사 음식연구가 전주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고문헌 자료를 찾는 연구와 더불어 축적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전주 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주 음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여행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관광산업과(063-281-238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오늘은 내가 영화 속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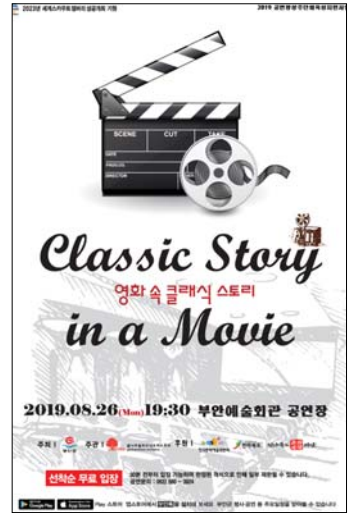
부안군, 문화가 있는 날 '영화속 클래식 스토리' 26일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6일 오후 7시 30분에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기원 '영화속 클래식 스토리'를 부안 예술회관에서 무료공연으로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클라루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단장 유수영)의 클래식 연주로 유명 영화음악을 한번에 들을 수 있는 공연이다. 클라루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은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금산시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10회 이상 정기 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영화 음악곡으로는 귀여운 여인, 아마테우스, 시네마 천국, 웰컴투몽마탈, 오페라 유령, 미션, once, 어벤져스, 산체스의아이들, 스타워즈에 나오는 OST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마치 유명한 영화 10편을 보는 듯한 한여름 밤의 무대가 펼쳐져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 '영화음악 클래식' 공연은 26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익산 보석박물관이 여름방학 기간에 준비한 '키즈보석아카데미' 박물관이 살아있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 보석박물관, '키즈보석 아카데미' 체험 성료

익산 보석박물관이 여름방학 기간에 준비한 '키즈보석아카데미 박물관이 살아있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접수 시작 후 일주일 만에 조기 마감 됐을 정도로 높은 인기와 관심을 끌었으며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

에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방문했다. 프로그램은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총 4회 운영됐으며 레진 팬던트, 보석을 활용한 은반지 만들기 및 공룡화석 발굴하기(지질시대 탐구), 샌드아트 체험 등의 다채로운 내용의 현장 체험

학습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호응이 컸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간직하게 할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어린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원원 기자

찾아가는 열린무대 국악한마당 남원편 방송

24일 오후 12시 10분 KBS 1TV 전국 방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프로그램인 KBS 국악한마당 무대가 24일 오후 12시 1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국악한마당 공연은 '여류명창 소리대전'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남원출신인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안숙선 명창을 시작으로 방수미, 장문희, 박인혜, 이소연 명창 등 국

악계를 대표하는 여류명창 5인이 출연하여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소리들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안숙선 명창의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은 명창의 소리꾼 인생 60년 내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공연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찾아가는 열린무대 KBS 국악한마당 남원편 녹화공연은 광한루 창건 60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남원=김기투 기자

문화예술위 추천위원 20명 공개모집... 내달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제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추천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1일까지다.

문체부는 추천위원 선임 절차의 개방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지난 2018년에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당시에 도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를 구성한 바 있다.

추천위는 총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각

추천 분야와 인원은 ▲ 문화 3명, ▲ 미술 3명, ▲ 연극 3명, ▲ 전통예술 3명, ▲ 문화일반 8명이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 단체당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문화예술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